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11월 23일 (월) 제727호 흥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일 편집인 주간 고영호 편집장 박윤정 인쇄인 홍운주 펴낸 신문사 951-4151, 952-7128(국) 외대학보 협성기자실 (서울) 061-4152, 4468 FAX 951-4183 (동인) 033-30-4112 서울 시 중구 문화로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산 89

“가능하면 학생들과 함께가겠다”

평양외대측 의사 중요 이유로 확답은 안해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 협정체결의 실현 가능성에 지난 6일(금) 통일부에서 조희봉 총장의 방북 승인으로 기념되고 있다. 제한된 틀 속이지만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지금,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은 민간학원 학술교류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보는 조규일 총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북한에는 인재들 갈 것으로 예상되는가 풍물부의 '봉황' 허가는 이미 났고 곧 북한 측 관계자와 접촉할 예정이다.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 제3회 톨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얘기가 잘 되면 2~3월 일 안에 평양외대에 갈 수 있다. 장소는 남. 북. 제3국 어디가 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앞으로 문제에 등 치적적인 이유로 남북관계가

가 결핵국면에 접어들지도 모르지만 순수한 민간학원의 교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학교 학술교류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학교 86명의 외국대학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대학은 몇 안된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며 같은 목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인 평양외대와의 교류가 막로 양 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학이 '봉황'을 지향하는 대학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위상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미전 외대보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를 이용해 통일에 대한 본보의 동향지에 대해 83.8%의 학생들이 찬성하고 밝혔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데려가고 싶다. 학

생자들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간부, 교수 등 대규모로 수행단을 꾸리고 싶다.ただし, 이는 내 의지보다는 평양의 대 족의 반응이 더 중요하기에 조침장이 외보와 결승점이다.

학술교류가 성사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우선 자료교환부터 실시할 것이다. 교재, 사전, 교과서, 학술지 등의 교환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교수교환, 학생 교류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세미나, 모의 UN, 모의 월드컵 등 우리학생들의 행사를 평양외대생을 초청하여 함께 행사할 예정이다.

대답 박윤정, 정치 김민석 기자



각자 대등한 선거가 향후 처리되는 가운데, 오는 25·26일(목)은 암배터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을 뽑는 날이다. 소중한 투표의 권리가 포기하지 않고, 외대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 수 있는 대표제를 건설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17·18일 전쟁판 서울에서 풍경이다. 사진제작자: 임승희 기자

양 배움터 총학 오는 25, 26일(목) 선거

이번주 대부분 단과대 선거도 함께 치를 예정

서울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문화회 선거에 이어 이번 주에는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와 총학 생회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이미 선거를 끝낸 곳은 범례, 동양대학, 사과대학이다. 사법대학은 지난 17·18일(수·목)에 걸쳐 투표를 실시했으나 박영준, 김상현 후보간의 표지(6표)가 무효(11표)였다. 밤야 오늘(25일) 시험기간을 정문 앞에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른 법대 학생회는 단독 이후보였던 김현식(2·처음 주(2)조)과 전체 학생의 48.1%가 투표한 가운데 83.3%의 찬성을 얻어 당선했다. 동양대학 학생회는 전체 1628명 중 1173명(7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권영순(인문 2·2군)이 60표를 얻어 56표를 얻은 기호 1번 박석진(중국어 3·군)을 누르고 당선했다. 사회대학은 단독임 후보였던 김은원(신방 3·군)이 99표

생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양대학, 동아리연합회(동연) 회장 대, 총학생회장 등 10개 단과대학에서 '총학생회장 집행부들이 한 해 동안 공금 300만 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대표되는데, 이에 중앙선관위위원회는 기호 2번에게 '근거없

이'로 평가됐다. 선거개혁기기 과정에서는 이는 때보다 선거개혁기기 과정에서는 특히 총학생회 정·부학

생회 선거의 경우가 극심한데, 기호 1번 신동한(동구·한가리어 3·김동국(자연·환경 4·기호 2번 도영봉(서학·러시아어 3·김호시학·서반 이어 3·조) 선거운동본부(선본)에서는 각각 김의실방문, 정경호본부, 이침 선전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 '표'를 호소하고 있다. 다른 해에 비해 학생회장 유달리 많은 이번 각 학생회장 선거는 총학생회, 서양대학, 동연, 총여학생회 등 4곳에서 경선으로 벌어져, 암호부간의 대자보는 경쟁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한껏 고열된 상황이다.

▶총학생회 정경호본부 및 정경분석은 3면, 총학생회 선거분석은 11면

지난 1년간의 고통

▲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이 됐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날이 작년 12월 3일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를 눈코 뜯고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빠지지도 않고 일해온 분들이다. 그 끝에 1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 민도기에게 노동자들은 "우리가 월급 줄이고 보너스 반납하고 연장근무까지 할 테니까 재발 경지에 고민은 하지 말자"고 회사에서 호소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은 고용 안정계약을 맺은 지 6개월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노동자들이 과정으로 맞서자 공권력을 불러 진압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좌판 하나 마련해서 걸기이며 살자 하는 것도 도리지 않아 보인다. 1년 열심히 일하고 빚만 진다는 농민들, 수해까지 겹쳐도 나의식량을 책임지기보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고는 빛더미뿐이다.

▲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삶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배움터를 점령한 대선의 애기를 들어보면 올해 30명이 출연했는데, 취직된 사람은 1명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인턴쉽으로 재용보거나, 아니면 놓고 있다가 한다. 그 선배 역시 출업률은 1년이 2년 까지 차이가 있다. 디플로마를 가도 일자리가 없다는 부끄럼만 놓으면 놀라울 뿐이다. 내년 출업자 중에 몇이나 변동한 명수 하나님 가질 수 있을지…

▲ 올 겨울은 리나나 한진으로 특히 추울 것이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1년 반의 핵으로 IMF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누구를 광고하고 물어봐도 반년 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없다. 점심을 굽는 아들을 위해 아들의 새끼, 손기력을 자르는 어버지가 생기고,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아주머니들이 좌판 하나 마련해서 걸기이며 살자 하는 것도 도리지 않아 보인다. 1년 열심히 일하고 빚만 진다는 농민들, 수해까지 겹쳐도 나의식량을 책임지기보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고는 빛더미뿐이다.

우리의 권리 역사 25·26일(수·목)은 총학생회 선거가 됩니다!

저... 시간 있으세요?

같이 선거하러 가지 않을래요?

25·26일(수·목)은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는 날이에요.

내 의견을 염바르게 대변하는 대표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학, 진정한 우리의 외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총학생회 선거, 한표로 나의 권리가 꼭 찾을꺼예요.

우리 선거하러 같이 갑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만나보기 -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성유보 공동대표

“조선일보 못 막으면 민주화 없다”

조선일보 안보기, 허위·왜곡보도 법적대응 등 전개 경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학술단체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시사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0개 시민
사회·종교단체들은 지난 19일(목) 기독교학관에
서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공대위)'
를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본보는
공대위 공동대표인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공대위 결성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도 나오듯이, 첫째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 11월호를 통해 민주화
운동 세력인 노조·농민회·시민단체 등을 국
가이익보도는 사이 증대 활동에 주목 힘을 쏟
은 이익단체라고 평가했고, 민주화란 말도 이
단체들의 이익주의와 당파성을 위장하는 말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였
다. 둘째,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최장집(대통령)·정희문(원장), 고려대 정치
학과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의 과정과 왜곡을 서슴지 않
는 언론특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의 이런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날짜·회색·통신은 물
론 이 사회의 민주화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

으로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 명의로 보낸 조선일보에 보내는 공개서한의 내용은
조선일보에는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이
념논쟁 중단 △극우적 '선동자님리즘'으로 좌
우대결을 부추긴 조각집 편집장, 우종환 기자
퇴출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공개시사와,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요구들
이 관철되지 않으면 △조선일보 인보기 △보
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 인허가 운동 △광고
안하기 운동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이 4가지 실천운동을 40개의 공동대
체위로부터 전사화적으로 전개할 것을 경고
하고 있다.

이후 공대위는 어떤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

먼저 오는 23일(월)까지 조선일보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수용되는지 지
켜볼 것이다. 이후 국민에게 드리는 글·공
개시사·통신·조선일보의 폭력성·한계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반민주적이며 권력과
협력한 부분과 친일 관련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갖는 영향력을 악강하다. 성금을 수 있
다고 보기

예전 드체정권과 싸울 때도 우리는 항상 자
신이 없지만 용감한 자는 현실에 분개하여
일어선 것이다. 아직도 손구령전보수이데올
로가 서로 접한 조선일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벌인다
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개미가 참기 단체들이 적극적이다. 전교조의

경우는 '조선일보 기자'의 출입을 막습니다. 라

는 소리가 나오도록 스피커도 설치한다고 한

다. 조선일보의 형태와 의사의 바뀌지 않는

한 이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이 조선일보의 사상공세로 인해 가

경 징을 피하는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데

군사단체장과 기성세대는 화이 많이 악

했다. 반면 학생운동 세대의 힘은 강하여 민

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반민주적인 조선일보

가 학생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학생운동·노동운동·재야 등 모든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공안체계의 탄압과 조선일보의 사

상공세를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된다.

사회부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해정씨 체포

지난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
사람이 신고를 제기해 조선일보에 연행된
천 범부동 장관이 밤새 바 있는 '보안관
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93년 남매동단 사건으
로 구속수색·선간 복역했다. 김씨는 이날 밤
11시 현재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경찰의 구두지
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
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에 지난 9년 한동
내로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에 거주여정지 관찰' 명령서장에 출소신
장을 신고해야 하며 '경당한 이유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출소신고를 제기해 조선일보
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 이씨가 이에 차운 불법에 긴급체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경환장을 서로 혼동된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오후 2시 30
분 경 경찰 기지에 따라 풀려났다. 이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
인다.

이씨는 경찰서에서 풀려 나온 후 "이미
형을 살고 나온다"며 일부러 범법 행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
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형의로 실형 3년을 살
고 나온 정민주씨 또한 연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씨는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23일에 걸쳐 경찰의 출
두요구서를 받았으나 보안관찰법에 저항한
다는 의도에서 이를 응하지 않았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에 거주여정지 관찰' 명령서장에 출소신
장을 신고해야 하며 '경당한 이유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출소신고를 제기해 조선일보
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클린턴 방한 반대 움직임 거세

서울대 등 대학가 중심으로 전국 확산 전망

지난 20일(금) 미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클린턴 방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
고 있다.

정서회, 이숙이(성장 건국대 충주배움터),
김진길(한양대) 교수 등 출동연 대학생 5명은 지
난 20일 오후 5시경 서울 광화문 앞 미대사관
앞은 물론 TMB·부족증·클린턴 방한 결
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한국민족 결사
반대' 현수막을 펼쳤다. 특히 클린턴이
한국 수여를 위해 서울대를 방문한 것이라는
얘기와 전래에서부터 반대 움직임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삼
각형 모양의 교문에 대형 삼각 반대 플래카드
를 걸고 교문·선전판·시내 선전판을 펼치고
있다.

이후 이들은 전투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
었으나, 21일(토) 즉시경과 김진길군은 불구
속, 나머지 4명은 벌금 5만원과 선고우로
여정으로 청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PC통신 통해 조선일보 비판한 2명 체포

컴퓨터 통신을 통해 조선일보와 김대중 주
필을 비판하는 통신인 2명이 1998년 10월 19일(목)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됐다.

19일 긴급체포된 김학민·공희준씨는 통신에
여론 글 때문에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모두 끝났다.

또한 같은 시간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15명
의 학생들이 클린턴을 돌아다닌다는 플래카
드와 'X' 자를 그린 쇄초기를 주위에 펼치고
유인을 배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서울대에서도 '클린턴 방한 반대 움직임
활발화'에 일고 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수여를 위해 서울대를 방문한 것이라는
얘기와 전래에서부터 반대 움직임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삼
각형 모양의 교문에 대형 삼각 반대 플래카드
를 걸고 교문·선전판·시내 선전판을 펼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방한 반대 투
쟁은 앞으로 청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젠, 가둬 버립시다

박정희의 유신기헌을 '뜨거운 애국심과 뛰어난 영도력의 발현'이라며 지지·찬양했고,
전두환을 '한없이 자상한 지도적 자질을 지녔다'며 칭찬했던 조선일보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앞잡이로

해방 이후에는 독재의 앞잡이로

권력에 빌붙어 왜곡과 매국의 펜을 들어온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가둬야 합니다.

더 이상 왜곡보도와 마녀사냥, 민주세력 탄압을 못하도록

이제는 가둬야 합니다.

민족주권
외대학보

유가협 국회농성단을 찾아

“내 아들을 두 번 죽이지 말여”

각 당사 앞 항의시위 등으로 '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여

지난 4일 전국민족주권유가족협의회(유가협)
는 '민족주권사자 명예회복과 의사 전장규
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막농성을 시작했다. 자식을 혹은 남
편을 떠나보낸 이들, 살해된 자들의 천막농
성 현장을 찾아보았다.



이해정군의 어머니 배은실 유가협 회장

"아들은 잘 몰라, 천막농성이 얼마나 아파..."

스티로폼으로 바다를 삼고 비단과 장판
조각으로 벽과 지붕을 만든 천막이 어의
도 한복판에 세워졌다. 이전에는 날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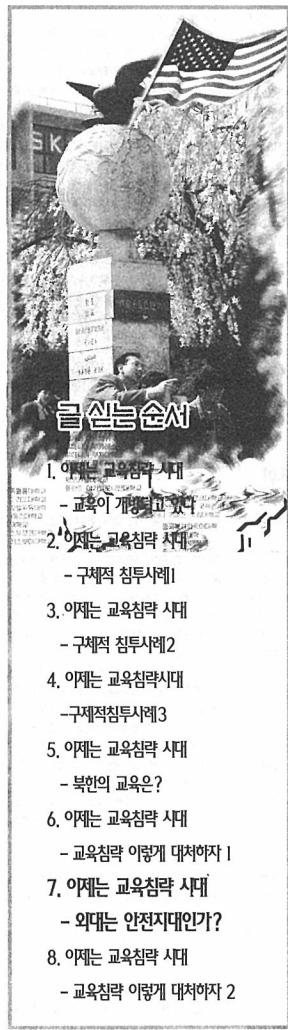
각종 축제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여행을 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천막을

놓고 천막을 짓고 있다. 그들이 천막을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⑦ 외대는 안전지대인가

세계속의 외대, 교육개방 후엔 '외대없는 세계' 전략

재정·시설 수준 턱없이 낮아 전혀 경쟁력 없어



글싣는순서

- 1.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이 개방되고 있다
- 2.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구체적 침투사례1
- 3.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구체적 침투사례2
- 4.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구체적 침투사례3
- 5.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북한의 교육?
- 6.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침략 이렇게 대처하자!
- 7.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외대는 안전지대인가?
- 8.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침략 이렇게 대처하자 2

교육개방이 아직 전면화되지 않고 있는 지금 시기, 교육개방을 기반으로 보이는 전면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중 대부분이 교육개방 시장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교육부의 학부제, 대학원중심대학, 국제대학 설립 등의 정책으로 대학들이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각 대학 스스로 대학대학 전면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빠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교육개방 시장에 우리학교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정을

친집자

**교육개방 전면화로 나타난
외대의 피해사례1**
교육재정에 있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학교의 교육재정은 끝나니 없이 부족하기로 유명하다.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은 모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학교법인)의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음에도 이를 전입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학교 총학생회는 매년 '재단전입금을 확충' 하자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총학생회에서는 재단 자금이 떨어지는 것을 사실로나 우

리기 퉁명한다면서 해서 재단의 전입금을 열

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재단전입금 확충 투쟁은 거의 벌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벌이는 투쟁은 서울대등의 경우 비용은 꽤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곡동 이전'을

핵심 투쟁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용인배움

터의 학교 등록금 삭감, 교통문제 해결, 서

클버스 운행, 세대관 설립 등의 요구를 하

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단적으로 보면 재

단이 대학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학교운영 자금 대부분이 학

생들의 등록금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않을

수 없다.(본보 723호 참조)

그러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신동희(동구·창기·미3) 김동국

(자연·환경 4) 선언운동본부에서는 밝혔

듯 한국대학교연구소(총장 박근용 상경

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

교집금은 10억7천8백만원이며, 재단

적립금은 25억2천1백만원이다. 따라서

총 적립금은 16억9천8백만원인 것이다. 이러한 금액이 대학에 있으면서도 대학 당국과 재단은 학교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 학생 등록금을 물리고자 유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무려 1200만원이라는 학금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진정 싸야 할 곳인 학교에는 사용

하지 않고 이를 은행에 넣어둔 채 이를

이만 훔드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적립금 중 대

부분이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당국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 관행으로 이미 자리잡았다면 교육개

방이 전면화된다면 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정책으로 우리

학교가 교육개발 시대 속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다. 오히려 '이제는 교육침략시대' 기사 속에 꾸준히 나

왔던 대로 외국의 막대한 자본 침투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재산권에서는 이를 노리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열이 있다면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 우리나라의 학교를 감안한다면 대규모 교육기관이 대학을 외국대학, 자본으로 넘기는 것을 상상한 이들이 월

것은 투덜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학교 자체를 교육에 대한 대의를 가진 사람

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수

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라

면 우리학교를 비싼 값에 팔아치울 수 있

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교육개방 전면화로 나타난

외대의 피해사례1

교育재정에 있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교육개발 전면화로

피해사례 2

교育환경에 있어서도

역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98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회원국의 1/3000원과 비교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26.1명)는 OECD 회원국 평균(13.5명)의 2배다. 97년 현재 우리나라 대

학 교육의 낙후성을 서울대(10만원), 고려대(150만원), 연세대(140만원), 이화여대(109만원), 한양대(133만원), 경희대(103만원) 등 대학 도서관의 통장수가 하

버드래(200만원)의 장서보다 적은데도

도 둘러나는 대학연구비는 94년 현재 7억 8600만 원으로 미국의 3.8%, 일본의 5%에 불과하다. 95년 현재 대학수수료 연구논문 역시 미국의 2.1%에 불과한 5,614건으로,

세계 22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위에서 같은 외

국대학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 교육환경 비교 ●

교수 1인당 발표실적		도서관 장서수		교수 1인당 학생수	
학교	평균(본)	학교	평균(본)	학교	평균(본)
서울대	4.30	서울대	190	서울대	14.2
고려대	2.82	고려대	150	고려대	23.2
연세대	3.04	연세대	140	연세대	17.7
한양대	3.39	한양대	133	한양대	24.8
동국대(서울)	4.29	경희대	103	경희대	24.9
경희대	3.00	경희대	282	서강대	28.2
성균관대	2.71	이화여대	109	성균관대	22.3
한국외대	1.32	한국외대	59	한국외대	33.5



국내대학과 비교를 해보면 90년 현재 교수 1인당 발표실적은 고려대 2.82편, 경희대 3.00편, 동국대(서울) 4.29편, 서울대 4.30편, 성균관대 2.71편, 연세대 3.04편, 한양대 3.39편, 한국외대 1.32편으로 국내대학 속에서도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으며, 위에서 나온 국내대학 도서관 장서수와 우리대학과의 정수비를 비교해보면, 97년 현재 59만4천여권이 이 부분에서도 역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 현재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우리학교 34.5명, 한양대 24.8명, 서울대 14.2명, 경희대 24.9명, 고려대 23.2명, 서울대 28.2명, 성균관대 22.3명, 연세대 17.2명 등으로 많

은 차이가 남을 수 있다.

97년 현재 교수 1인당 발표실적과 연관 있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우리학교 34.5명, 한양대 24.8명, 서울대 14.2명, 경희대 24.9명, 고려대 23.2명, 서울대 28.2명, 성균관대 22.3명, 연세대 17.2명 등으로 많

은 차이가 남을 수 있다.

97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통장수는

34.5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95년 현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통장수는 28.2명으로,

본보 특종!

미국 대통령 특별한 혜택과 통보없이 APEC 불참, 아시아·유럽 정상들 불참을 했던 이유는? 답: 미국은 군사적 합체로서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이리카가 무리하게 밀을 수 없다. 어려하든 우리는 이리카와 전쟁을 해야 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에 대한 반응적인 주장을 해도 우리의 영향력은 우한국은 차기자리의 걱정보다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응호하는데 일정서 기 때문이었다…

(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당시 절에 탄 암을 달면서 암살수였다는 것이 딱임입니다. 유기협의 늙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사의 죽음을 진상규명과 병원회복을 외치며 친환경을 하고, 조계사 농성단이 정치수배해제를 외치고 있으며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과문

철과문과 종법서약서 철문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 비인권국가에서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성을 높여서 미안한 국권개선 촉구 결의안 대회에 한국을 참석시켜 주었고 합니다. 비인권 국의 인권 대통령…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계)

…3·3수생은 고달파다. 이 지겨운 생활 빨리 빠져나고 싶다. 왜 내가 3수를 해야 하는지, 나 스스로도 답답하다. 단지 학생들을 두고 빨리 학생회장과의 일합체인 한중련을 왜 해주시려고 하는지, 어쩔 수 없는지, 오늘도 집안 어른들이 나보고 빨리 3수 빠져나라 구현한다. 3년째 학생회 선임본부에서 한중련에 와해운전에 실체한 경찰과 고백-

(계)

3수생의 고달픔

이문 벼

알립니다

재 외대 제주 항우회에서 출입생 환승회 합니다.

때: 28일(토) 늦은 5시

곳: 모집박

(제주항우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일한 오케스트리안 외대 관현악반이 공연을 합니다. 초회를, 음악의 감동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모두 오세요. 물론 공연입니다.

때: 24일(화) 늦은 6시 30분

곳: 대강당

(관현악반)

왕 산 골

모집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개최장을 긴급 모집합니다. 열정 있는

루마니아인이라면 ok입니다.

(12대 루마니아와 학생회 일정)

축하합니다

포르투갈과 학생회장 김동성과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포르투갈과 학우 일정)

수화동이랑 동기, 후배, 선배님들, 터키아와 주간맞아 애슬레

까지 무사히, 상대에 치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슬레

는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구요. 도와드

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터키아와 97 진아이)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1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30-4112, 4580

서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바랍니다.

(손말사랑회 편)

알립니다

24, 25일은 총학생회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양 후보의 정견과 공약을 잘 따져보고 정한 후 대책 책임하고 학생회를 강화할 수 있는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꼭 합시다.

(외대를 사랑하는 학생)

· 철과문과 '삶, 사랑, 사람을 얘기하는 자리'라는 주제로 청년시민회관에서 철과문과 함께합니다.

행사 준비하시느라 청년회원 여러분,

너무 너무 수고했구요. 청학인들 사랑합니다.

(청학회 II)

영상과 문화 - 영화로 읽는 유럽 문화 특강에 대한 단상

이것이 새로운 영화읽기다

영화해석에 역사·문화적 시각 도입

영화가 출신의 사회학자인 아르놀트 하우저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시는 20세기는 '영화의 시대'이다. 이 표현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는 영화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 장르였으며, 할리우드의 경우처럼 자본과의 결속을 통하여 고부기기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에서부터 예술성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 유럽의 경우처럼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이 빛나면서 종합 예술로의 위치까지 꼭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다.

그러나 영화는 만들어진 의도 또는 지닌 성격이 무엇인가에 그 영화가 만들어진 지역에 대한 많은 문화적 코드를 가진,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사실은 확실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영화의 개념은 영화가 지닌 날짜 스펙트럼에 비하여 단지 '고부기기자'의 대중적 영상 오락 거리' 아니라,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이 빛나면서 종합 예술'이라는, 다소 극 단적으로 폐쇄적인 한계에 머물렀다. 그런 한 인식으로 인하여, 영화를 읽는다는 표현은 다수의 일반 관객과는 거리가 먼, 전문 영화 팬들은 물론 전유물로 자리잡아 왔으며, 영화 팬은 역시 전문가 수준의 난해한 경문이나 면 흥미 위주의 표면적 감상과 나누었던 감상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90년대가 시작된 이후 지금 우리나라 -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화가 치치하는지는 기볍지 않다. 대학에서 학회 세미나의 커리큘럼 영화를 택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 아니며, 많은 젊은이들이 사이에서는 빌을 세며 영화를 보거나 영화 칵자 한 두권 정도는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통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영화 관객의 위치에 민족하지 못하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해석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국, 영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높아 가지만, 막상 영화란 대상이 '가장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물'을 찾는 문제는 어제도 우리의 영수 수준 태도에 있어서서 속죄로 남아 있다거나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학교의 각 지역 전공 강사들을 주축으로 지난 9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9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문, 왕산 양 배움에서 열린 '영화·영상과 문화 (부제: 영화로 읽는 유럽 문화)'는 영화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일반 영화 관객과 영화가 지닌 성격과 달리, 4편의 리시아, 프랑스, 독일, 멕시코 영화 텍스트를 살고, 영화가 만들어진 지역에 대한 역사와 영화 텍스트를 살고,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코드를 통하여, 영화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함께 거구로 영화 해석을 바탕으로 한 각 영화의 배경 지역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러한 파악으로 형성되는, 보다 깊은 다른 사회의 이해라는 상호 작용의 결과를 만들어 간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기법에 지나치게 쉬운 모습들은 영화의 배경이 된 사회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코드의 역할을 한

다.
영화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든 같은 기간에 일정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가 없는 영화 텍스트의 해석이란 공허한 것이다.

결국, 영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높아 가지만, 막상 영화란 대상이 '가장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물'을 찾는 문제는 어제도 우리의 영수 수준 태도에 있어서서 속죄로 남아 있다거나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학교의 각 지역 전공 강사들을 주축으로 지난 9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9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문, 왕산 양 배움에서 열린 '영화·영상과 문화 (부제: 영화로 읽는 유럽 문화)'는 영화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일반 영화 관객과 영화가 지닌 성격과 달리, 4편의 리시아, 프랑스, 독일, 멕시코 영화 텍스트를 살고, 영화가 만들어진 지역에 대한 역사와 영화 텍스트를 살고,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코드를 통하여, 영화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함께 거구로 영화 해석을 바탕으로 한 각 영화의 배경 지역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러한 파악으로 형성되는, 보다 깊은 다른 사회의 이해라는 상호 작용의 결과를 만들어 간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기법에 지나치게 쉬운 모습들은 영화의 배경이 된 사회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코드의 역할을 한



영화는 각 사회의 지역·문화적 배경속에서 존재한다. 사진은 영화 '소아'의 장면이다

을 통하여 2차대전 전후의 독일 사회가 가진 문제집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멕시코 영화 '달빛산사와한 초콜릿''을 통하여 리턴 아메리카 사회의 이중적 가치를 이해 하려고 노력으로서, 앞서 말한 영화 해석의 틀을 갖추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전문 영화인들의 영화 비평이 가진 성경험과 단순한 영화 관객의 영화 감상문이 지닐 수밖에 없는 암울함만을 접하게 되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현실에서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은 기존의 영화 평론과 같은 깊이가 아련한 역할의 담당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영화 해석의 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미 외대민의 장점인 다양한 지역 언어 학습을 바탕으로 1987년부터 동, 서양대학에서 열린 세계영화제를

비롯한 영화 관련 소모임들의 지속적인 영화제 개최, 교내 시네마테크 설치 노력 등으로 그러한 시도의 기반이 만들어져 가는 지금, 영상과 문화와의 정식 교양 과목 설치와 통한 지속적인 실시간 교육 강의의 영역 확대를 바라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외대의 가장 큰 과제인 특화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영상과 문화 특강은 외대민의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연구의 분산이라는 외대민의 특성을 살려, 외대가 주 구해야 할 발전의 방향 제시에 대한 충실한 시도였다.

이유진

〈서양·스칸디나비아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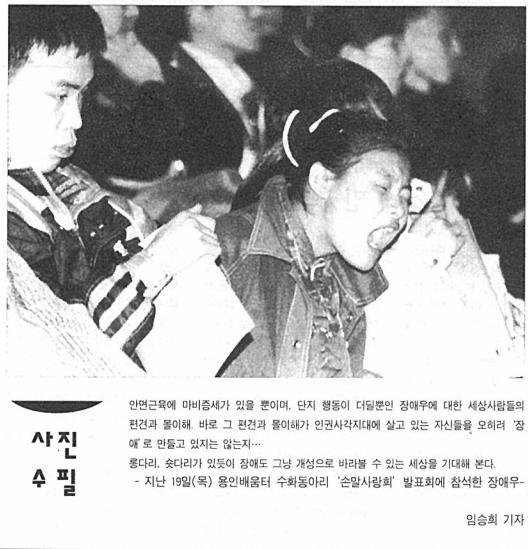


사진
수필

안면근육에 마비증세가 있을 뿐이며, 단지 행동이 더듬뿐인 장애우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편견과 물이해가 인연사자지대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오히려 '장애'로 만들고 있는지는 있는지...
Honda, 솔라리가 있어서 장애도 그냥 개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 지난 1995(6월) 용인배움터 수화동아리 '손말사랑회' 발표회에 참석한 장애우-

임승희 기자

서평-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다시보기

미리엄의 '조용한 혁명' 차별을 뛰어넘은 여성의 제자리찾기

로렌스가 작품을 쓴 시기는 물질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존재했던 시대였다. 그 당시에는 공허한 물질과 번잡한 현실만이 증시되고 인간들은 경신 세계의 가치를 막강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렌스 소설 속 인물들은 끝없이 이 경신 세계의 길이를 막고자 더 높은 경신 세계에 대한 길망을 통해 그를 나름의 주체성을 찾고자 했다. 그의 초기작에서 그려지는 여성들도 역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의 초기작인 '아들과 연인'을 보자. 이 작품에서는 풀을 중심으로 그의 어머니인 보발 부인, 첫번째 연인이 미리엄, 두번째 연인이 물건리가 등장한다. 이 인물을 통해서 미리엄은 가장 남에게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표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엄에게서 자신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주체성 확립의 모습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더 높은 경신 세계로의 추구를 의미한다. 물건 미리엄은 여성으로서 정형화된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불편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오빠들은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소녀는 뺨짓이는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느느느

이 소리 질렀다.
"하지만 오빠들에게 말대꾸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서 난 네 말을 믿었지. 그런 네가 말다툼하는 걸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오빠들은 정말 밀살스러워요. 그리고... 또 아비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에드거에게는 말대꾸하지 말리고 내가 얼마나 신난단부했나? 그 애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단 말이야?"

레이버즈 부인은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겐 왼 뺨까지 내밀라'라는 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들들에게는 이 교훈을 주입시킬 수가 없었으나 딸들에게는 훨씬 성공적이었으며...

위의 예문은 미리엄이 여자라는 이유로 기장에서 받아야 했던 불편등한 대우와 잘못된 훈육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미리엄은 지식을 축적하고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했다. 높은 경신 세계에는 오빠들에 대해 미리엄이 가질 수 있었던 우월함이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그들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 미리엄이 풀에 글린 이유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미리엄은 풀의 영리함과 지식에 대한 동경에 반한 것이다.

그녀는 풀을 선명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체로 이 소녀는 남이라는 존재를 경멸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민첩하고 경계하고 우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슬픔을 느낄 줄 알고, 계획하고 일하고 아는 것도 많고 가족중에 한 사람을 잃은 경험도 있는 소녀이었던 것이다.

결국 미리엄은 풀에 자신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양심이 공부하여 교사 자리를 얻게 된다. 자기 집과의 세상 어울리지도 자신인의 독립된 자리를 가지지 못했던 미리엄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불평등한 대우에 저항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종교·학문과 같은 경신 세계를 그 수단으로 삼았다. 심로 이는 것과 그녀는 것·생각하는 것에는 모든 인간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제럴리나이언의 '사랑'을 중심으로 본 로렌스 문학의 이해 중에서)

혜운문화반

외 대 학술상·문화상 공모



맛 좀 봐라!

혼자만 먹지 마세요, 나눠 먹어요

혼자만 보지 마세요, 함께 읽어요

외대학술상·문화상에

여러분의 솔씨를 맘껏 뱉읍시요.

모집부문

문예상: 시·소설·수필·의곡·미평

학술상: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미감일: 12월 중순

문 이: 서울 혁생원 2층 혁생기자실 031-4191-4486

용인 혁생원 2층 혁생기자실 03830-3112-4480

미술자주연
외대학보